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도시건축 박물관 콘텐츠 제시

2016. 10. 22

권구현, 김민기, 김병기, 강두경, 김재형, 김호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도시건축 박물관 콘텐츠 제시

권구현, 김민기, 김병기, 강두경, 김재형, 김호준

1. 탐사의 필요성

가. 탐사 동기

조원들과 모여 인문자연탐사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종시에 여러 개의 박물관이 모인 박물관 단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지 내에는 국립 어린이 박물관, 도시건축 박물관, 국가기록 박물관, 디자인 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의 5개 박물관과 통합운영센터 및 수장고가 지어질 예정이다.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니 박물관 단지 설계와 그 구체적인 계획 등에 대한 공모전도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국립박물관단지가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았다. 이에 우리는 새롭게 지어지는 박물관 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활동을 진행 해보기로 하였다.

나. 연구 문제 선정의 이유

박물관 단지 내의 여러 박물관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도시건축 박물관이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어지는 박물관으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우리는 해외 도시건축박물관의 사례를 조사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도시건축박물관의 설립 목적과 그 박물관이 가지게 될 기능 등을 조사하여 그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시해보는 것을 이번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다. 문제 접근 과정

자료 조사를 통해 세종시에 지어질 도시건축박물관이 운영될 계획과 박물관이 가질 기능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도시건축 박물관은 일반 시민의 도시건축문화 수준의 향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 도시건축의 위상제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효과의 극대화 등 여러 목적이 있었는데, 아직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하지 못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박물관의 활성화와 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는 박물관의 활성화와 접근성을 위한 박물관의 콘텐츠를 제시해보기로 하였다.

2. 탐사 과정

가. 탐사 일정 및 경로

수요일

시간	내용
----	----

09:00~10:20	학교 출발, 자동차를 통해 국립세종도서관 도착
10:20~12:30	해외 도시건축박물관 사례 및 기타 자료 조사
12:30~14:00	중식
14:00~15:30	해외 도시건축박물관 사례 및 기타 자료 조사
15:30~17:00	도보를 통해 호수공원으로 이동 후 근처 박물관단지 부지 검토
17:00~18:00	석식
18:00~19:00	귀교

목요일

시간	내용
09:00~10:40	학교 출발, 자동차를 통해 국립세종도서관 도착
10:40~12:40	해외 도시건축박물관 사례 및 기타 자료 조사
12:40~13:40	중식
13:40~17:30	LH 세종 홍보관 방문 및 행복청 문화박물관 센터 인터뷰
17:30~18:20	석식
18:30~19:00	귀교

금요일

학교에서 자료 조사 내용과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세종시 도시건축박물관의 콘텐츠를 기획해본다. 이후, 생각한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인문자연탐사 포스터 제작 및 보고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

나. 해외사례 및 국내 유사 기관 조사

해외사례 조사)

해외에서는 도시건축 박물관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진열하여 독특함을 주는 지를 알아보았다.

국내 유사 기관 조사)

국내에서 도시건축박물관과 유사한 박물관들에 대하여 홈페이지와 참고문헌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유사 기관으로는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고건축 박물관과 서울특별시시에 위치한 청계천박물관으로 선정하였다. 박물관의 전시물이 어떻게 배치되어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청계천 박물관 홈페이지 : <http://cgcm.museum.seoul.kr/cgcm/index.do>

고건축 박물관 홈페이지 : <http://www.ktam.or.kr/>

나. 도시건축박물관 부지 및 관련 기관 탐방



도시건축박물관이 들어서 부지를 탐사하였다.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으며, 어떤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았다.

사람들의 이용이 많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는, 세종국립도서관에서 직접 도보를 이용하여 찾아가 본 뒤 사진을 촬영하였다

-관련 기관 탐방

LH 홍보관을 방문해 관련 자료들을 수집했고, 행복청의 문화박물관센터에 근무하시는 천세창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궁금증을 해결함.

3. 탐구 결과

가. 해외 사례조사 및 국내 유사기관 조사

해외 사례 조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건축 박물관으로는 프랑크푸르트 건축 박물관, 파리 건축 박물관 등을 들 수 있다. 대개 상설 전시보다는 전시 내용이 매번 바뀌는 것이 특징인데, 이중에서도 쿵 힘멜브라우의 작품인 '유럽 중앙 은행(Europe Central Bank)'의 설계 과정을 나타낸 매쓰 모형이 인상 깊었다. 하나의 건축물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건축 연구소'라고 알려져 있는 NAI(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는 건축 박물관 이외에도 건축 역사에 대해 공유하는 도서관이자 저명한 건축가들의 만남

의 장이다. NAI 박물관 내부의 특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도시’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인터랙티브한 전시가 많으며, 둘째는 단순한 도시 건축을 넘어선 녹색화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국내 유사 기관 조사)

고건축 박물관의 경우 고건축물을 단순히 나열해 놓았다. 이는 학습효과가 낮고 흥미를 떨어뜨려 일회성 방문시설에 그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청계천 박물관은 시간에 따라서 4층으로 나눠서 청계천의 발전과정 및 주변 도시설계를 설명하고 있다. 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기획에 좋은 참고사례가 된다. 뿐만 아니라 복개된 청계천의 지하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별도의 체험관, 모형과 전시패널을 통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이해, 전시홀 중간 중간의 영상실 운영 등은 다양한 전시기법을 통한 관람만족도의 증대에 있어 좋은 참고사례가 된다.

나) 부지로의 접근성

도시건축박물관의 부지는 세종호수공원의 산책로와 인접하여 있다. 때문에 시민들, 남녀노소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근처에 큰 도로가 있어 외부 사람들의 접근 또한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4. 결론 및 제언

결론) 우리가 삽입할 콘텐츠 구성

통일 문화관)

목적 :남한과 북한의 건축양식이 분단 이후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남북분단의 의미와 통일에 대하여 생각해보니 계기를 주고자 한다.

의미 : 이는 우선 우리나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분단 이래로 도시건축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도시건축박물관과의 차별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건축박물관의 목적 중 하나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도시건축문화 양식의 소실된 유산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 과정은 미래에 서 봤을 때 중요 사건 중 하나이며,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건축문화가 달라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콘텐츠 제시) 통일 문화관은 크게 세 가지의 소주제로 이루어진다. 먼저 분단 이전과 이후의 시간에 따라 북한의 건축물들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북한과 남한의 건축이 어떻게 다른지,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만큼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다.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건축물의 변화

-이 소주제는 크게 일제 강점기와 항복 이후로 나누어서 들어갈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이래로 전통 양식의 건축물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항복 이후

1945년 일본의 항복 이후, 조선에는 일본의 양식보다는 서양의 양식이 우위를 가져갔다. 그렇게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다..

② 남한과 북한의 건축물 차이

북한과 남한은 분단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치 체계, 이념, 언어, 생활 양식뿐만 아니라 건축 양식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드러난다.

③ 공통된 뿌리와 기능을 가진 북한과 남한의 도시 건축 비교

ex) 한옥 기반 건축물

- 그 외 공통된 뿌리이기 때문에 가지는 공통점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주거공간이 아파트이다.

기대 효과 : 남한과 북한이 건축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남한이 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분화되었으며, 아직까지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가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후를 대비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만드는 세종시)

목적 : 시민들에게 환상형구조를 이해시키고, 자신들이 세종시의 건물들을 재배치 시켜보면서 세종시의 도시계획의 잘된 점들을 부각시킴으로서 세종시를 홍보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근거 : 행복중심복합도시의 홍보하고 브랜드화 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컨텐츠 제시) ‘내가 만드는 세종시’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세종시의 주요 건물들의 위치를 옮기거나 차선을 변경해 봄으로서 세종시의 구조의 이점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① 체험자들이 세종시의 주요 시설들과 도로 등을 직접 배치해보게 한다.

② 각각의 배치결과를 통해 도로의 교통·상업·주거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와 현재의 배치와 비교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세종시 설계를 맡은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③ 앞선 활동을 바탕으로 전문가와의 질의를 통해 시민들이 세종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게 한다.

기대효과) : 시민들에게 세종시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세종시의 도시계획을 홍보하는데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의 건의가 도시설계의 과정에 도움을 주어 세종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증진시킬 수 있다.

5. 활동 후기

강두경 : 선배들이랑 같이 세종시를 탐사하고 함께 협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다. 도시와 건축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권구현 : 세종시에 설립되는 도시건축박물관의 설립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세종시에 살면서도 세종시에 생기는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관심이 없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새로운 정부의 기관 또는 시설이 생기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김민기 :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통해서 세종시에 세워질 도시건축박물관의 콘텐츠를 제시해보았다. 처음에는 자료를 인터넷으로부터만 얻으려고 했는데, 직접 탐사를 통해 자료를 얻어보니 더 좋은 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탐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 좋았다

김호준 : 박물관과 같이 세종시의 매우 작고 소소한 부분으로도 세종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느꼈다.

김재형 : 학교를 나와 이번 기회에 세종시를 둘러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어려웠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김병기 :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통해 세종시에 미래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직접 세종시의 여러 지역을 탐사하고 돌아다니고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세종시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었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 다른 친구들의 발표도 매우 흥미롭고 세종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가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6. 참고 문헌

-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계획(안)
- ▶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필요성 및 기능
- ▶ 도시건축박물관 콘텐츠 개발 및 전시기획 연구 최종보고서